

돈 바르게 쓰기

성경말씀: 눅16:1-13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착한 사람을 부르려고. 착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무언가 모르는 사람
눅15에는 잃어버린 양, 동전, 아들의 비유가 있다. 예수님의 포인트(눅19:10)

유대인 지도자들의 무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죄인이라고 함,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성장 불가
구원의 두 요소: 1. 하나님께서 직접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 나신다. 2. 잃어버린 아들 비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작은 아들: 죄인, 자기 뜻대로 살며 방탕하다가 제 정신이 들어 아버지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기쁨
큰 아들: 종교인,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기쁨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아버지와 동생 멀리
큰 아들만 빼고는 15장의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렸다.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작은 아들: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 큰 아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후자의 문제: 위선, 근본 원인, 교만과 탐욕, 눅16장은 탐욕의 문제,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1-13)

탐욕을 부리면서 위선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면 지옥에 간다(14-31)

21세기 기독교의 문제: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베니 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 뉴에이지 추종자들, 부를 찾아 헤맨다.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나?
“돈은 천국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다. 행복을 빼고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기억해야 한다: “ 돈은 탐욕을 일으키는 원동력, 잘 쓰면 좋은 중, 못 쓰면 무서운 주인
복음서의 예수님 사역에는 재물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을 섬김,
제자들에게 그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하심, 초대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옴
회개하기 전의 작은 아들: 인생과 재물 허비, 큰 아들: 불평에 차서 재물을 제대로 쓰지 못함

둘 다 옳지 않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인생과 재물, 기회를 바르게 써야 함

성경의 재물 관

재물, 돈은 악한가, 선한가, 중립적인가?

부자에 대한 저주(눅6:24), 어리석은 부자 비유(눅12:13-21), 부자와 나사로(눅16:19-31), 부자
치리자(눅18:18-30), 전반적으로 돈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패망으로 심지어 지옥으로 이끈다.
딤후6:6-10,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

세상을 살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재물 필요, 거기에 매이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재물을 바르게 써야 한다는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다(1). <돈 바르게 쓰기>

청지기

어떤 청지기(1-2): 부자의 재산 관리인,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주인을 위해 재산을 쓰고 누린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실함(고전4:2), 믿음직해야 한다.

재산을 보며 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유익, 기쁨을 위해 바르게 써야 한다.”
이 청지기는 이것을 놓치고 재산을 허비함, 주인이 알고 회계 보고 요청, 해임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역시 주님의 청지기, 인생, 재물, 지식, 재능, 기회, 그리스도의 심판석(롬
14:10-12; 고후5:10)

돈: 십일조만 하면 다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회계 보고해야 할
때가 있다. 눅12의 부자(12:21)

시간: 그리스도인은 시간도 잘 관리해야 한다(엡5:15-17).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의 청지기는 기회를 잘 사용해서 미래를 준비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인생의 목적을 즐기는 데 두면 안 된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재능: 재능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섬겨야 한다. 음악, 방송, 음식, 권면, 운동, 기쁨

말씀과 복음의 청지기(살전2:4): 바른 성경을 지켜야 한다. 바른 복음을 지키고 알려야 한다.

신실하게 한 대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목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청지기의 지혜로움

청지기의 현실 인식(4):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주인에게 빛 진 자들을 불러 빛을 탕감해 줌(5-7)

기름 백 말, 오십으로, 밀 백석, 팔십으로

심지어 그의 주인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를 칭찬함(8)

예수님은 청지기가 재물을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일을 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다.

그가 자기의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을 칭찬함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지혜롭다(8)

세상 사람들은 시가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

세 가지 적용

다시 강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1)

1.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한다(9), 삶은 끝난다. 돈, 기회, 학식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딤후5:7).

특히 돈은 불의하다. 11절의 참된 재물과 대비, '신뢰할 수 없다. 속인다. 멸망으로 이끈다'

거짓말로 속여서 대출 얻은 불의한 돈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영존하는 처소에서 우리를 환영한다.

우리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바르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존하는 처소를 주는 게 아니다.

4절과 9절 비교, 이 땅의 집과 하늘의 집,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환영하고 환대한다.

주일 헌금, 미디어 선교 헌금, 건물 헌금, 구제 헌금, 풀링 등(고후9:6-11)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눅12:33-34).

우리는 이 세대를 섬기다가 다 남겨두고 간다. 삼성 이진희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우리의 물질로 인해 천국에서 기뻐할 성도들을 생각하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2. 작은 것에 신실해야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10-12절).

재물을 바르게 써야 한다. 재물은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셔야 바르게 쓰일 수 있다.

바울과 베드로 등 모두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보았다(딤후3:3, 8; 벰전5:2).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돈에 의해 부패된다.

성경과 교리가 정확하면 돈도 바르게 써야 한다.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고 사역을 지원해 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 특히 목사들이 이 문제에서 정직해야 한다.

헌금 취급에 관한 한 바울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고후8:21).

3. 하나님과 맘몬 둘 다를 섬길 수 없다(13). 이것은 한 사람이 두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개와 두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나머지는 주님이 해 주신다(마6:19-24).

즉 온전히 주님께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마6:33).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돈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쓸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돈의 종, 돈을 허비할 것이다.

6월 11일 동성에 집회, 악한 세력들 돈 잔치, 우리도 저지하기 위해 찬조하였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 건축, 일루미나티의 상징들, 오벨리스크(남성 성기) 종탑, 타원형 눈 모양의 교회 안마당에 세계 지도, 호루스의 눈, 남녀의 합일을 통한 다산의 축복(인도의 남근상)

결론

우리는 청지기, 삶은 반드시 끝이 난다. 회계 보고한다.

지금의 재물, 재능, 기회, 시간을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

특히 구원과 성경을 위해, 영원한 것, 영원한 성도들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부리는 사람,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사람

재물이 풍성한 자, 비전이 큰 신실한 청지기가 많이 나와 복음 사역, 성경 사역 등에 매진하기 바란다.